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17 초원시명도

문인문화에 대한 중인층의 동경과 차

조선시대(약1392~1550)에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산수, 인물, 화훼, 영모 등 다양한 화목의 그림들이 제작됐다. 각 화목을 대표할 만큼 뛰어난 화가들은 있었지만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년~?)처럼 다양한 화목에 두루 뛰어난 재능을 가진 화가는 드물었다. 말년의 김홍도는 그동안 구사했던 화려한 기교에서 벗어나 졸박한 속에 그림의 참뜻을 담고자 하는 초월적 경향을 보여준다.

간송미술관 소장, 김홍도의 '초원시명도(蕉園試茗圖)'는 고즈넉한 언덕의 파초 한 그루를 배경으로 한 수수하면서도 고상한 풍취의 작품이다. 이국적인 정취를 드러내는 파초는 불에 탄 뒤에도 속심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해 기사회생(起死回生)을 상징하며 불교의 팔길상(八吉祥)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넓은 잎사귀는 떨어지는 빗소리를 감상하기에 좋고 시원한 그늘은 한가로워 옛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자연히 그림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했다. 그림은 화면 중앙에 큼직한 파초를 배치함으로써 파격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다. 파초의 형태를 연한 묵으로 그려내고 진한 먹색의 잎맥을 은은히 번지도록 해 김홍도는

의 생활 중 필수품으로 서(書) 첩(帖) 화(畫) 지(紙) 묵(墨) 필(筆) 연(硯) 금(鑪) 향(香) 다(茶) 분완(盆玩) 등을 열거하고 있다. 조선 후기 선비들이 지닌 은자적인 삶에 대한 지향은 이러한 서재문화와 서화고동(書畫古銅) 취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후 이러한 문화는 점차 중인층에게까지 확산됐다. 18세기 시인으로 활동한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의 <추재기(秋齋紀異)>에는 문인의 삶을 동경한 한 중인의 일상이 묘사돼 있다. 골동품 수집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한 서울의 손 노인이 빈방에 홀로 쓸쓸히 앉아 단계석(端溪石) 벼루에 고묵(古墨)을 갈아 묵향을



김홍도, '초원시명도', 기본담채, 37.8x28.0cm, 간송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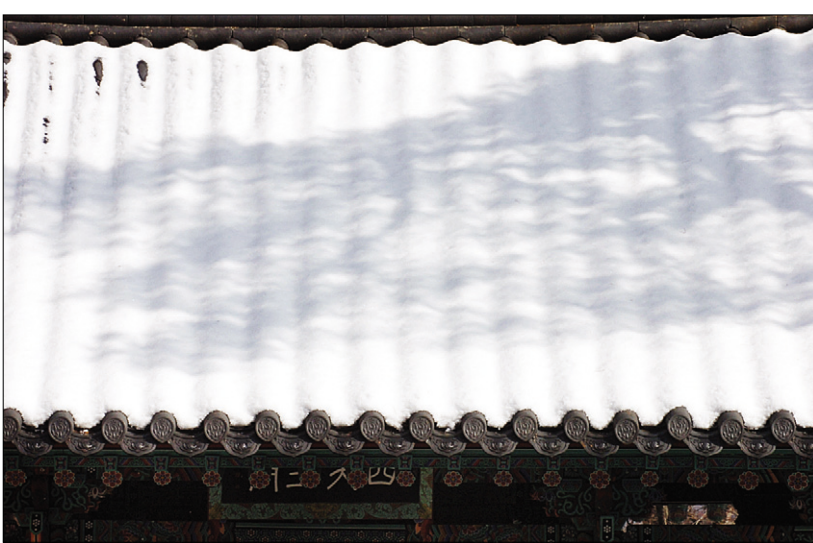
를 빚을 후의 파초 잎을 정정한 느낌으로 담아냈다. 그들이 만들어진 자리에는 주변의 돌을 그랭이질 삼은 서탁(書案)이 소박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 표현이 완고한 선비의 깨끗함을 상징하는 듯 짙고 투박하기만 하다. 서탁에 놓인 경책과 작은 원형의 벼루와 먹, 서화 두루마리와 거문고, 투박한 찻잔 세계는 은일지사의 취향과 미감을 전해주고 있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또박또박 동자가 질화로에 무쇠다관을 올려놓고 조그마 앉은 채 부채질하며 화력을 조절하고 있다. 그 표현에는 김홍도의 풍속화에서 익히 보았던 순박함이 그대로 살아있다. 차 준비가 한창인데 이 차의 주인은 근방의 여인가에 잠시 산책이라도 나간 것일까. 사슴이 귀를 쫓겨가며 바라다보는 어디쯤에서 다가오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다.

당시에는 이처럼 산거처사를 소재로 한 그림이 많았는데 이는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문학의 확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명대 문사 도홍(屠隆)이 지은 <고반여사(考槃餘事)>에는 산에서 생활하는 산인(山人)의 생활과 취미의 즐거움을 적고 있는데, 선비라면 마땅히 지나야 할 수행의 방식과 함께 산거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14 사천왕과 소나무



눈이 내린 사천왕문 지붕 위에 소나무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장성 백양사, 사천왕이 서 있는 사천왕문은 사찰을 지키고 악귀를 내쫓아 불도를 닦는 이들로 하여금 절집이 신성한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 세워진 대문이다. 절집엔 법당까지 이르는 길에 몇 개의 문이 있다. 그 문들은 늘 열려 있지만 누구나 드나들지는 못한다. 특히 사천왕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다. 지금도 우리가 합장을 하고 편히 드나드는 사이 사천왕은 합장한 불제자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악귀를 쫓고 있을 것이다.

듣고 나아 할 곳에는 '문'이 있다. 듣고 날 일이 없다면 문도 필요 없을 것이다. 부처님 만나는 일도 쉽잖아 듣고 나아 하는 일인가보다. 지붕 위의 소나무 그림자가 지붕을 내려와 법당으로 가고 있었다.

옛 판화의 세계

백낙천이 법을 배우다 낙천참문(樂天慘聞)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인 백낙천이 항주 자사로 있으면서 그 당시 유명한 조과 선사를 만나 법을 묻는 장면으로 나무위에서 수행하시는 조과 선사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판각됐다. 당나라 때의 석도림은 속승이 반찌이며 부양 사람이다. 그는 장안 서명사의 복례 법사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화엄경>을 배우고 그 후에 경산의 국일 선사를 찾아가 마침내 정법을 얻게 됐다. 도림 선사(道林禪師, 741~824)는 특이한 수행방법으로 참선을 했다. 선방에서 대중과 함께 면벽의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명한 날이면 경내에 있는 고목의 소나무 높이는 가지 위에서 좌선을 했다. 그것은 참선 공부를 하다가 졸면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공부 방법이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화 연간에 백낙천이 외직으로 나와 이 고을의 태수가 됐다. 그는 스님의 명성을 듣고 인해 산에 들어와 예열하고 스님께 물었다. '선사께서 머무시고 있는 곳은 매우 위험합니다.' '태수의 위험은 더욱 심합니다.' '저는 벼슬이 강산을 진압하고 있는데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업화와 서로 교접해 식성이 멈추지 않으니 그것이 위험

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백낙천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많은 선한 일을 봉행하는 것입니다.' '세살 먹은 어린아이도 그런 말은 할 줄 압니다.' '세살 먹은 어린아이도 벼룩 말할 수 있지만 팔십 먹은 노인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백낙천은 마침내 예배를 드리고 떠났다."

우리는 불법의 이치가 이 현실세계와는 동떨어진 아주 특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과 선사가 당대의 최고 지식인에게 주신 법문은 삼척중자도 다 알고 있는 '제악막작(諸惡莫作)하고 중선불행(善奉行)하라'는 말씀이다.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선생으로부터도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불법을 따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팔십 노인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듯이 어차피 인생살이 자체가 힘든 것이라는 각오로 출발한다면 불법을 향한 걸음은 한걸음 가깝게 될까 생각해 본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시가 있는 도량

좌광우도

넙치의 눈으로 보든 도다리 눈으로 보든 똑 같은 세상 두고 왜 서로 즐겨볼까 박인 눈 다르다 하여 시비(是非)마저 다르라

(우리 사회의 좌파 우파 간 극심한 대립. 어쨌든 사물을 왼쪽 눈으로만 보면 왼쪽으로 보이고, 오른쪽 눈으로만 보면 오른쪽으로 보일 수밖에...)

사무사(思無邪)의 삶

청상(靑孺)의 다듬이 소리에 홍낙엽(紅落葉) 흩어질 짐 쥐뿍 같은 벌빛 따라 삶의 좌표 찾아가면 속세와 절연한 청산 사무사로 묵도(默禱) 중

겨울 섬산

간 부은 들쇠 녀석 한 입에 깨문 거암(巨巖)은 쌓인 붉은 노송 팔뚝 하나 공양하면 잠항(潛航)된 푸른 대붕(大鵬)씩 적멸(寂滅) 차고 오르네

-한상철 시조시인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낙천참문(樂天慘聞)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 x 18.0cm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웨이셀타올



삼베웨이셀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올의 특징

산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헴프)사와 죽사(대나무에서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웨이셀타올 세안법

- ① 삼베웨이셀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 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③ 삼베사워타올을 물에 헹구 후 닦아줍니다.
- ④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⑤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확장이 잘 됩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특허출력제품

- 용 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헴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매일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일, 등산할 때, 한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실업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산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헴프)사와 죽사(대나무에서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명숙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향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용 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헴프사, 죽사
- 용 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목욕천 등
- 규 격 - 30cm x 30cm(S) / 30cm x 50cm(M)

위생·항균·향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사워타올



삼베사워타올 - 각 5,000원

- 용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질 - 헴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매일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일, 등산할 때, 한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바닥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등골까지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방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조, 습포 마사지를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조,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 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겨울이철 의질은 바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갑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갑니다.
- 한자목욕용으로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웨이셀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사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들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